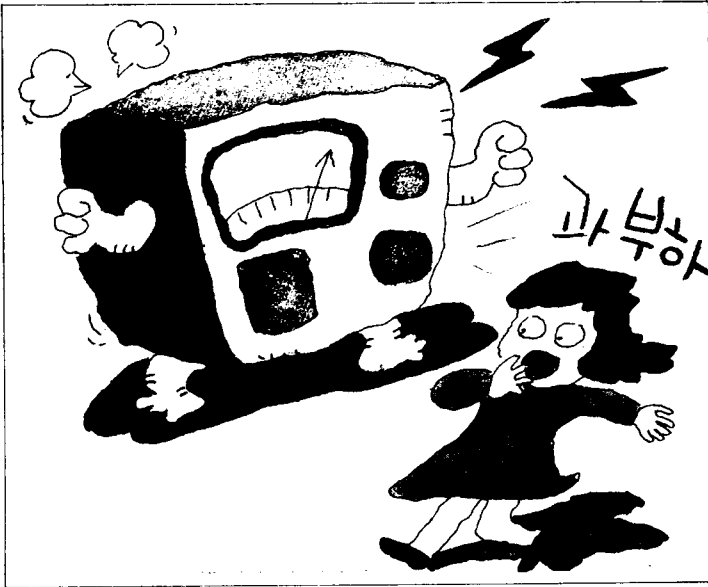


그날 이후.....

이 순 흥



‘퐁’ 하는 폭음에 놀라 방에 있던 내가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뛰쳐 나갔을 때는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였다.

1983년 12월. 그날따라 유난히도 추웠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당시에는 나들이를 하려면 추운 날씨에 두살박이 어린 아들을 업고 나가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잦은 외출을 삼가하고 있던 때였는데 부득이 하게 그날은 절친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신랑감을 소개하는 날이었기에 뿌리 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월례행사 정도로나 하는 외출을 감행했던 것이다.

노루꼬리 만큼이나 짧은 겨울해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 일을 마치고 풍풍 언채로 집에 돌아와 몸을 녹이려고 아랫목에 손을 넣어보니 한기가 느껴졌다. 외출 직전에 연탄을 바꿔 놓고서 처음부터 공기구멍을 막아놓고 나갔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꺼져버린 모양이었다. 그때만 해도 신혼 2년생인 내게 있어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연탄을 요령껏 잘 구슬려 꺼트리지 않는 일이었는데 살림에 익숙치 못했던 탓도 있었지만 허름한 13평 서민 아파트에 등지를 들고 살았던 우리로서는 연탄 한 장도 선불리 대할 수 없는 큰 존재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아낀답시고 무리해서 막아 놓으면 앙갚음이라도 하듯 꺼지는 일이 허다 했었다. 그날도 똑같은 우(愚)를 반복한 날이었는데, 불씨가 없어지자 방안에서도 냉기가 느껴져 창문의 커튼을 여미면서 건너편 아파트 뒤로 해가 숨는 것을 보게 되자 마음이 다급해졌다.

금새 바빠진 나는 서둘러 아이를 내려놓고 우선 아이가 춥지 않도록 전기스토브를 켰다. 부리나케 쌀을 씻어 전기밥솥 코오드를 꽂고, 뚝배기 만한 전기쿠거에 찌개감을 넣은 다음 그것마저 한 콘센트에 꽂아 놓았다. 그리고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TV도 켜 주었다.

다른 날 같지 않게 허둥지둥 식사 준비를 서둘러 한 것은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마침 태기가 있어 심한 입덧으로 보름 남짓을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다가 겨우 식욕을 되찾은 후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급한 일을 대충 마치고 방에 들어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고 있었을 때 바로 문제의 그 폭음과 함께 전기가 나가고 동시에 섬광같은 불빛이 번쩍하고 스쳐갔다. 그리고는 순서를 따질 것도 없이 전선 타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흔비백산해서 거실로 나가보니 트랜스(Transformer, 변압기)가 폭발하여 불이 붙고 있었다.

그때의 심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무서울 때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모든 단어를 다 가져다 댈다한들 오히려 부족할 것 같은 그날의 형언할 수 없었던 마음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모를 것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일일이 나열해 본다.

더불어 놀란 아이가 겁에 질려 울어댔지만 마음을 줄 겨를도 없이 이제는 끝장이다 싶은 절망감이 빠른 속도로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 불이 확대된다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마저 기억할 수 없게 된다는 공포 때문에 정신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당황해서 속수무책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바라만 보다가 자꾸만 아득해지는 정신을 주워 모아 입고 있었던 스웨터를 벗어 트랜스 외부에 붙어 있는 불을 꺼다. 순간적으로 지나간 폭풍우를 견뎌 낸 후에는 그래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 걱정 뒤에 뒤따라 오는 고요를 그때처럼 절절하게 내 평생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싶다.

화재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변압기의 용량을 초과한

때문이었다. 좀더 전문적인 말로 전기의 과부하(過負荷)로 인한 화재였던 것이다.

요즈음 신축 아파트에서는 가구마다 따로 설치된 트랜스를 구경하기 힘이 들지만 그때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오래된 탓으로 220V를 110V로 바꿔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구마다 트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다행한 것은 트랜스 속에 감겨진 코일이 순식간에 타면서 불길의 트랜스 외부에까지 붙었지만 큰 화재로 번지지 않게끔 하는 데는 아파트 내부가 목조가 아닌 시멘트 벽이었다는 것도 한몫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보라. 몇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를 떠올리면 놀란 가슴을 진정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무척 놀란 경우에 10년을 감수했다고들 말한다. 누구나 한번쯤은 그 말을 썼을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 말의 심도를 충분히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일이 있는 직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10년이 아니라 50년을 감수했다는 말이었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장없는 진실이었다. 그때의 정신적인 피해를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뿐아니라 그 일이

있을 후유증으로 지금껏 아물지 않은 또 하나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것은 그때 내가 임신 3개월의 몸이었다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연 유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로 그 걱정 때문에 다음날로 병원을 찾았는데 다행히도 아기에겐 이상이 없었다. 그렇지만 아이가 잘못되어 비정상아로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몇일을 고민한 끝에 결국 나는 병원을 찾아 임신 중절을 하고 말았다.

우리 모두가 불의 무서움을 안다. 그러나 나처럼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피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농도가 조금은 열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하나 그렇다고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면 그뎨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난 후가 된다. 너나없이 매사에 조심하면 될 것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야 어렵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이 지면을 통해 무겁게 털어놓는 엄청난게 부끄러운 일은 내가 전기에 관해 전혀 무지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으니 화재의 경중을 떠나서 내가 당했던 화재를 예견



못할 만큼 그 방면에 무지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알기만 하고서 실행을 안한다면, 즉 실천되어지지 않는 지식이 아무리 많다한들 겉치레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이상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마치 어젯밤 꾸었던 악몽이라도 되는양 4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때의 기억은 생생하기만 하고 지금 내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전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전기가 되고 말았고 또 화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었다. 덕분에 이제는 불조심에 생활화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에게 한번쯤

불에 대한 간단한 상식을 일깨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내가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는 것을 적어 볼까 한다.

화재발생 사항을 원인별로 보면, 전기로 인한 것이 전체 화재의 30%를 점하고 있는데 거의가 전기의 과부하에 의한 것으로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불장난, 유류의 순인데 예년에 비해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화인의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상기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언젠가 TV에서 인상깊게 보았던 것을 피력하겠다. 어느 방송 리포터의 화재 예방에 대한 심층취재 보고였는데 이웃이 이사해서 집들이를 할 때에는

다른 어떤 선물보다 소화기를 가져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백번 동감하며 소화기 하나 정도는 가정마다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 나름의 의견과 아울러 그것을 사용한 화재진압 방법도 평상시에 익혀 놓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하나, 예기치 않았던 엄청난 불행에 대한 대비로써 보험에 들어 둔다든지 하는 유비무환의 지혜를 갖는 것도 불시에 닥친 환난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V 광고를 보고 지금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애가 한동안 즐겨 썼던 이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만큼 우리의 눈과 귀에 설지 않다.

결론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려면 불을 비누거품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외에도 화인이 될만한 것이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우리 곁에서 불이 화마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사용해서 이로운 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소엔 눈여겨 보아 두었던 불조심에 관한 표어 하나를 덧붙이고 싶다.

「불날 자리 표시 없고 불날 시간 예고 없다.」